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먹는 기쁨은 하느님께는 영광입니다

농촌은 먹거리의 보고이고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이고 우리 모두에게 휴식과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인간은 흙에서 온 것을 먹으며 하느님이 주신 이 소중한 아름다운 몸을 돌봅니다. 몸을 통한 노동의 결실로 맛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으며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의 나눔은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을 통해 전달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보호에 맡겨져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주변의 모든 자연의 보호자가 됩니다.

가톨릭 농민회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통해 어느 곳보다 생명을 살리는 농사 방법(농사 체계)을 통해 땅과 밥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민 주일을 맞아 우리 농산물 생산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기농 생산자는 매년 인증기관으로부터 잔류농약, 수질, 토양, 인근 환경에 대해 검사를 받아 유기농 인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이라 함은 1차적으로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의 시기를 보냅니다. 이를 무농약 제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무농약으로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일컬어 유기농산물이라 부릅니다.

유기농법은 자연친화적인 농법으로 제철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채소 종류가 적습니다. 한우와 돼지 닭은 자급사료를 먹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에게는 곡물 사료와 GMO 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땅과 밥상, 몸을 살리는 우리농 운동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본당 우리농 나눔터와 가톨릭 우리농 매장을 통해 가톨릭 농민회원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유기농산물은 나의 몸과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쓰면서 하느님 창조 질서에 동참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며, 땅을 살리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유기농산물을 먹으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합니다.

우리 유기농산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통해 나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강형섭 미카엘 신부 | 농어촌사목 겸 가톨릭 농민회 담당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창세 18,1-10L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 서	골로 1,24-28
복 음	루카 10,38-42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22항)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해 5월 24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이래, 교회 공동체의 생태적 회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고, 가톨릭 교회는 2021년부터 7년 여정으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를 위하여 구체적인 생태 환경 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 교구와 본당, 단체, 개인이 탄소 중립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27회 농민 주일을 맞아 특히 농업과 관련하여 교회가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에 어떠한 실천으로 부합해야 하는지 살피며, 더 올바른 방향으로 힘 있게 매진해야 합니다.

농촌 사회의 희망인 소농 정책

우리 농촌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지키고 계신 농촌은 농사지를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말해 줍니다. 기계화된 기업형 농업, 화석 연료를 태우는 대형 하우스와 스마트 팜(Smart Farm), 대규모 축사의 육류 가공 등 소수의 인력으로 대량 생산을 이끌어 내는 자본주의적 농업 방식이 우리 농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방식은,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화석 연료나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여 탄소 중립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칩니다. 더욱이 농업 구조는 소수의 고소득 기업농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농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농들도 중요시하는 세심한 정책들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소농들이 살아야 식량 주권(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 5% 이하), 탄소 중립이라는 커다란 가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농촌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하여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소농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농촌과 도시의 상생 관계가 더욱 간절한 시기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탄소 중립

오늘날 우리의 삶을 떠올려 봅시다. 대형 마트에서 커다란 수레에 한꺼번에 장을 보고 돌아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곤 합니다. 택배와 배달 음식 등을 손쉽게 이용합니다. 저렴한 먹거리를 찾다 보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이라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고릅니다.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절약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 양식 자체가 운택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는 일상을 돌아보며 습관적인 소비의 삶에서 벗어나는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일상의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대량 소비와 편리함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다운 삶의 기쁨을 주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생태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우리농)의 첫 마음으로

주교회의는 1994년 춘계 정기 총회를 통하여 교회가 우리 농민과 농토와 농업을 살리는 일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교구별로 본당에 우리 농산물 나눔터를 설치하는 데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농이 각종 화학 농약과 비료 등으로 점철된 관행 농업에서 벗어나 땅과 물을 살려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생명 농업을 시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적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향으로 1990년대 말까지 거의 모든 교구에 우리농 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조직되었고, 도시 본당을 중심으로 우리농 나눔터가 설치되어 정직하고 건강한 우리농 농산물을 신자들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농의 농법은 관행적인 농법보다 훨씬 많은 땀과 노고가 수반됩니다. 이 길은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길을 걷는 시간은 그 신앙적 가치를 신자들에게 알리며 농산물 나눔에 대한 열정도 충만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25년여 시간 동안 참으로 의미 있는 길을 힘차게 걸어왔음에 자긍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우리농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농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여 우리농이 추구하였던 방향을 되새기고 새롭게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 전체를 생태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연대하여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실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외를 일깨우고 지속 가능성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삶의 흥겨운 축제를 위하여 노력한 때로 기억되도록 합시다.”(『찬미받으소서』, 207항)



아직도 전쟁 중

신호열 요셉 신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영천군대를위한시민연대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양키고 홈! 사드고 홈!

소성리. 많은 사람들은 소성리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에 미국의 사드기지를 만드는데 대기업인 롯데의 골프장을 부지로 받아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는 곳이 경북 성주 소성리입니다.

전국 정평위에서는 소성리에서 평화미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6일은 우리교구가 현장에서 평화미사를 봉헌하는 날이었습니다.

6월 6일 당일. 소성리로 향하는 길은 비가 흠날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부을 듯한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가는 저의 발걸음도 무거웠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소성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소성리로 향했습니다.

소성리에 다다르자 길 좌우로 사드 철폐!! 평화 정착. 사드 배치 절대 반대!! 글귀의 플랭카드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개었지만 이곳 주민들의 마음에 더없이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미군기지가 건설되고 있고 그 기지는 우리나라를 위한 시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사전에 알아내서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시설이 왜 이곳에 들어서고 우리나라 군대가 그곳을 지켜줘야 합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고 쫓겨나도 정부는 국민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이곳 주민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으며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 대표분께서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지 건설을 한다고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주민들이 나와서 길을 막고 싸웠는데 그때마다 경찰들이 우리를 끌어내고 차를 통과시켜주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일주일 내내 경찰이 상주하겠다는 기라. 우리도 농사는 지어야제...우째 매일 길을 막고 싸울 수 있겠노?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말 아이가...”

미사를 봉헌하고 미군부대가 건설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입구는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기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사드 철폐와 평화 정착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으로 잣더미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나라가 70년 만에 선진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먹는 것이나 치안이나 문화나 시민의식, 그 어느 것을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훌륭합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침략해서 식민지 만들어 빼앗고 훔치고 그래서 평평거렸던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잘살고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에 온갖 특혜를 주고 저자세로 임합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있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그들에게 고맙지는 않습니다.

우리 땅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그 땅을 오염시키고 황폐한 곳으로 만드는데 뭐가 고맙습니까?

진해 미군부대에서 생화학 실험을 위해 미국에서는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 땅에 무시무시한 병원균을 들여와서 실험하는 것을 고맙다고 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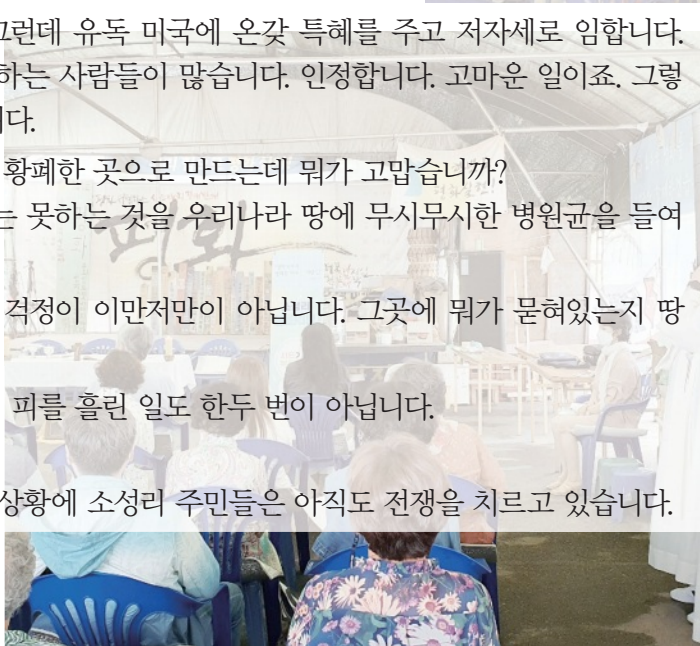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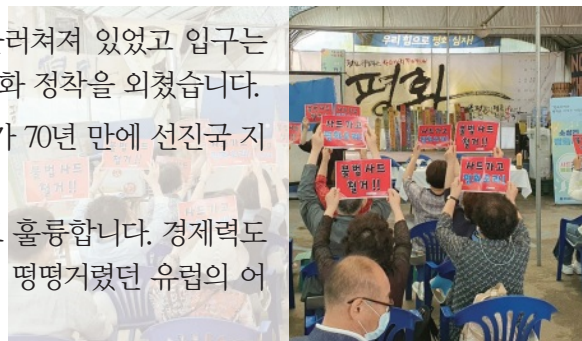
용산의 땅을 돌려받았지만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뭐가 묻혀있는지 땅도 제대로 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미군의 범죄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피를 흘린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계속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일까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도 훌쩍 지난 지금 이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8월 8일 다시 소성리로 향합니다.



교회의 앞날 걱정은 재정이 아닌 신앙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세상을 넘어 세상 속으로. 한국의 남녀 수도회와 선교회를 찾아서. 영상 2009

침묵과 기도, 관상으로 충만한 이 시간, 어떤가요? 세상의 흐름과 조금은 비껴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도자, 그들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정작 그들은, 세상과 자신들이 다른 점이란, 그저 예수님처럼 되기를 위해 ‘조금 더’ 열렬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데 말이죠.

‘조금 더’라는 말의 의미가 와닿으십니까? 그들이 사는 방식은, 모든 신앙인들의 삶보다 조금 더 열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삶의 방식, (사람인) 우리 ‘신앙인’ 모두의 삶의 근본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도자들은 ‘더욱 확고히, 고정된 생활양식’으로 살아가지요.

세상을 넘어 -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시편 46,11

정든 이들과의 이별,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그렇게 세상은 멀어지고 하느님과는 가까워집니다. 수도자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온 삼대 권고, 즉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떠남’은 수도자들만의 특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마태 19,5) ‘어른’이 되어야 할 모든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전히 ‘나’를 살기 위해서도, 나아가 혼인을 위해서도, 수도생활을 위해서도, 사람은, 떠납니다. ‘이것’, ‘저것’에서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청빈 -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큰 공동체에서 연립주택으로 분가를 했는데, 저희가 가난하게 시작해 보고 싶었어요. 많은 경우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었는데도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지금,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세상적 가치가 행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적 가치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 카타리나 수녀

정결 - 오롯이 주님만을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볼 때는 혼자 방을 쓰면서 혼자 살아가는 삶이지만, 제가 독신이라는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고, ‘모든 이의, 만인의 연인’으로서의 몫을 제가 받지 않았나... -하 스텔라 수녀

수도자들에게 정결은, 자신과 가정만을 위한 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삶을 살기 위한 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명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제 서품을 받는 수도자들이 제단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부복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바쳐진 몸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명이란, 예수님에 대한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에 선택한 순명이란 것이죠.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합해서 보면, ‘스스로’, ‘기쁨’, ‘풍요’, ‘나다움’, ‘우리’, ‘자유’,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께서는, 파견 보내는 제자들에게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마르 6,8) 하시며, “뭇이 중헌”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면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마태 6,33)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이고, 움츠러들며, 좁아진 시야로, 전전긍긍한다면, 신앙의 본질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내적 생활을 하든, 외부 활동을 하든, 혹은 선교 활동을 하든, 수도자들의 일상에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미사입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수도생활을 이끌어 갑니다. 수도자들에게 하루의 삶은 미사로 수렴되고, 미사는 하루의 삶으로 확산됩니다.

사제가 아닌 이가 집전하는 미사가 상상이 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없는 사제가, 신앙을 살지 않는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물어 봤”습니다.

세상 속으로 -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을 떠난 이들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만나는 이들, 역시 수도자들입니다.

물신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마른 사막과 같은 현대인의 삶, 이런 삶에 수도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인간 안에는 자기 초월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 참된 자아로, 자신을 넘어 이웃에게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찾아 자신을 닦는 사람들, 수도자. 빈 몸으로 세상의 가난을 품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진 이들, 이 절망의 시대에 수도자 그들은,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희망일지 모릅니다.



‘수도자’ 대신, ‘사제’, ‘신앙인’을 넣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옳소’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 교회는, 신앙을 제대로 살아오신 과거의 많은 분들 덕에, ‘천주교’라는 이름값만으로도 잘 나갔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이름값이 오히려 우리를 우쭐대거나 안일하게 만듭니다. 또는 근본을 잊고 현실감에 젖어 주저앉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의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매 순간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름은 껍데기가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요? 맹목적 선민사상으로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난 옛 이스라엘에게 그랬듯,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도, 하느님 백성 간판이 자동 은총을 보장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을 살고자 하는 이와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가 아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가 세상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밤이면 홀쩍 떠나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그분은, 그 ‘떠남’과 ‘홀로’를 통해 마련한 ‘여백’과 ‘풍요로움’으로, 세상을 충만히 품어내셨습니다.

미래의 사제인 신학생들에게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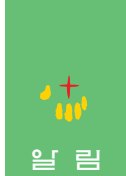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지 않았던가?

(아니, 필요할 때라도 하느님을 찾았는가? 오히려 재물이나 재밌거리, 술로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형제, 자매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였던가?

흔히 이런 질문을 사제들이 신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신학생 여러분께 바칩니다. 사제의 탈을 쓰기 전에 질문해 보세요. 사제로서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계속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이 맞습니까? 부족한 것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향이 없다면 뭐라 해야 합니다. 그 ‘지향 없음’이, 교회를 좀먹을 테니까요. ①선배 사제들의 훌륭함을 배우고, ②또 새로움을 입으십시오.

사제가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총대를 멘 십자가를 진 사제가 앞장서 길을 갈 때, 교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뿌리를 잃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구/본당

전국 청소년국장 회의

일시: 7월 19일(화)
장소: CBCK

전국 사목국장 회의

일시: 7월 20일(수)~21일(목) 1박 2일
장소: CBCK

전국 성소국장 회의

일시: 7월 22일(금)
장소: CBCK

청년 53차 선택주말 안내

일시: 8월 12일(금) 19:00~14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2~30대 미혼 남녀 누구나(47차<2017. 4.> 이전 참가자 재신청 가능)
신청: 7월 25일(월)까지 온라인 신청(<https://naver.me/xA3KI2RB>)
문의: 대표봉사자 010·4288·2698

청년성서 49차 탈출기연수 안내

일시: 8월 18일(목) 19:00~21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탈출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한 청년(선착순 15명 마감)
접수: 8월 4일(목)까지, 청소년국 홈페이지(청년부 연수 신청)로 신청
문의: 대표봉사자 010·2961·9918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종옥(마르코)
담당판사: 김정훈(도미니코)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7월 19일(화)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7월 모임

일시: 7월 18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2022년 가톨릭 상장례 교육(2박 3일)

일시: 7월 22일(금) 13:00~24일(주일) 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회장 010·4581·5420(김주화 프란치스코)

212차 ME주말

일시: 7월 22일(금) 19:00~24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평화순례-7.27 휴전협정을 종전 평화선언으로!

일시: 7월 23일(토) 08:30~16:00 (출발-창원시)
순례지: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합천원폭자료관 및 피해자 복지회관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소통&공감II - 새터민과 터민을 위한 사회 성장(총 7회)

일시: 8월 19일(금)~10월 30일(주일)
장소: 마산가정상담센터 프로그램실
대상: 상담을 통하여 동의한 새터민과 터민 10명
신청: 7월 29일(금) 18:00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문의: 마산가정상담센터 055·296·9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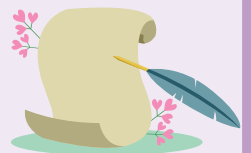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주방 1명, 시설관리 1명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본당 사제 추천서
접수: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cecomasan@gmail.com)
문의: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면접 추후 개별 통보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 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Anna Organ
창원시 전제구 신항동로 225
신항만 부영 3단지 307동 104호
전경선 안나 010 6409 4809
“조보 반주자 환영”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정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100ml
힐데 바나 60g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50ml
뜻밖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여름휴가 특선
설악 지리산권 2박 3일 성지순례
7월 30일/ 8월 1일/ 8월 13일
각 지역 출발
차량, 숙박 일체 258,000원
제이케이 트립 010.5150.2625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자연으로 돌아가자

박윤식 에밀리오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지금 지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신음 중이다. 세계보건기구 추산으로 사망자는 500만을 넘는다. 참으로 충격적인 수치다. 학계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박쥐에 주목한다. 지구 온난화와 산림의 무제한 벌목으로 서식지를 잃은 박쥐가 인간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연유로 박쥐가 코로나19 대재앙을 불렀다는 설도 설득력이 있다. 문명의 발상지 잉카제국의 멸망은 스페인 군대의 신무기가 아닌, 그들이 들여온 천연두였고, 14세기 유럽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도 흑사병이었다. 아무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인류의 목숨을 앗아갈지는 미지수다. 지구를 병들게 한 인류는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지구를 떠나거라! 나가 놀아라!” 이 유행어가 1980년대 개그는 물론 당시 코미디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이 말이 요즘 더 절실히 다가온다. 자연으로 돌아갈 마음을 크게 뒷받침해 줄 수 있기에.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를 것이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자주 들 것이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며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그곳으로 한 번쯤 가보는 게 백번 낫다. 복잡한 삶을 잠시 떠나면 어쩌면 새것이 들어올지도.

그렇다. 좀 단순하게 사는 것에 맞들이자. 삶에서 행복의 비결도 무척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더없이 복잡하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확 준다. 무엇을 할까를 염려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마음먹는 그 자세가 더 행복에 다가가는 것일 수도. 이것저것 많이 하려는 생각 좀 버리고, 꼭 중요한 것 다잡는 것만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첩경이리라.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것, 용도가 다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방법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여,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자.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쓸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스티브 잡스의 의상은 참 심플했다. 그가 제품 설명을 할 때는 언제나 검정 티셔츠에 청바지였다. 그 이유는 “소중한 시간을 좀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기 위해서”라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탐욕과 편리를 위한 자연 파괴 행위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그 섭리를 따르는 삶의 변화를 적극 실천해야 할 때다. 불편하더라도 좀 더 단순하도록 하자.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지금 즉시 삶의 자세를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어보자.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제안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한마디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 지금이다.



교구 레지아 14대 단장 선출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담당: 여인석 베드로 신부)는 7월 3일 교구청에서 개최된 제726차 레지아 월례 회의에서 백광렬 도미니코 부단장을 제14대 교구 레지아 단장으로 선출하였다. 백광렬 도미니코 단장은 레지아 서기, 부단장을 거쳐 단장으로 선출되었다. 백광렬 단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모님의 전구를 강구하면서 순명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하였다.

뜨겁거나 혹은 따뜻한...-김원일의 『믿음의 충돌』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믿음의 충돌』은 김원일의 중편소설이다. 『마당 깊은 집』으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경상도 출신 작가답게 이 작품의 곳곳에는 진해와 통영의 낯익은 지명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는 세 가지 모습의 신앙이 등장한다. 먼저 주인공의 어머니가 보여 주는 신앙이다. 어머니는 불이 난 교회에서 성상을 꺼내기 위해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다. 어머니의 일생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교회가 최우선이었다. 이 시대 어머니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남편의 무능, 외도, 폭력, 시어머니와의 불화, 자녀들의 말썽 등 가정의 힘겨운 일들을 교회에 가서 다 털어내고 그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가정생활의 불만이 커질수록 어머니의 신앙은 더 '뜨거운' 모습이 되어가며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미적지근한 신앙인들을 점점 경멸하고 무시한다.

두 번째는 주인공의 친구인 신주엽의 신앙이다. 신주엽은 유신독재 시기에 반정부 정치 사건에 연루되어 잠적한 후 신학 공부를 한 인물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치부되어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목사'가 아닌 '목자'의 이름으로 자신의 교단의 지도자 생활을 한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기거하는 남해안 쪽섬으로 주인공을 부른다. 40일의 금식기도를 끝내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일종의 제례 예식에 초대된 것인데 성경 문구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에 사로잡힌 이 극단적인 행위 또한 '뜨거운' 신앙의 한 모습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주인공이 소설로 집필하고 있는 작품 속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소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신앙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실제 작가 김원일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이다.

청상에 미망인이 된 여인(소설 속 어머니)은 남편을 잃은 뒤, 남편의 빈자리에 주님을 영접하고 일평생 독실한 신자로 살아오다 늙어 죽음에 이른다. 어머니는 눈앞에 이른 죽음에 순복함으로써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 소설 속의 내용이다.

“하느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 주님!”
어머니의 입에서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뒤엎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 (...) 스웨터의 좁은 등심이 가늘게 떨림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흐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아니 주님에게 매달려 당신의 멋진 원을 하소연하리라.

이 소설 속 소설에 나타난 어머니의 신앙은 앞의 두 신앙에 비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만이 옳고, 자신의 해석만이 맞다고 강변하는 '뜨거운'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일까. 어쩌면 다양한 우리 삶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신앙은 불처럼 뜨겁기보다는 미적지근하면서도 햇살처럼 따스한 것일지 모른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너무 뜨거운 신앙만이 참된 믿음은 아닐 것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따뜻하게 계시니 말이다.